



보도 일시	2022. 4. 19.(화) 22:00 (국제엠바고)	배포 일시	2022. 4. 19.(화) 11:00
-------	----------------------------------	-------	-----------------------

담당 부서	국제금융국 국제통화팀	책임자	팀 장 박민주 (044-215-4840)
		담당자	사무관 이동훈 (ldh5758@kroea.kr)
		담당자	연구원 지윤서 (cys12@korea.kr)

'22.4월, 국제통화기금(IMF) 세계경제전망(WEO) 발표

- '22년 세계 3.6%('22.1월 전망 대비 $\Delta 0.8\text{p}$), 한국 2.5%($\Delta 0.5\text{p}$) -

1. 보고서 주요내용

※ IMF는 '22.4.19(화), 22:00(현지 시간 4.19(화), 09:00)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발표(IMF는 매년 4·10월 전체 회원국 전망, 1·7월 주요국 수정 전망 발표)

① (세계경제) '22년 3.6%로 22.1월 대비 $\Delta 0.8\text{p}$ ('23년 3.6%, $\Delta 0.2\text{p}$)

○ 전쟁, 긴축적 통화·재정정책, 中 성장둔화, 코로나 영향 등에 기인

* '23년 성장률은 소폭 상승할 전망이나, '22년 하락을 상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② (그룹별 전망) ① '22년 선진국 3.3%($\Delta 0.6\text{p}$), 물가 5.7%(+1.8%p)

② '22년 신흥국 3.8%($\Delta 1.0\text{p}$), 물가 8.7%(+2.8%p)

○ (선진국) 유럽은 에너지가격 폭등, 공급망 훼손 악화 등에 따라 성장률 큰 폭 하락, 美·캐나다는 제한적 조정

* (韓)2.5($\Delta 0.5$), (美) 3.7($\Delta 0.3$) (Euro) 2.8($\Delta 1.1$) (英) 3.7($\Delta 1.0$) (日) 2.4($\Delta 0.9$) (캐) 3.9($\Delta 0.2\text{p}$)

○ (신흥국) 곡물가 상승, 수입수요 감소 등으로 대부분 성장률 하락, 일부 산유국은 유가 상승으로 성장률 상향 조정

* (우크라) $\Delta 35.0$ ($\Delta 38.6$, '21.10월 대비) (러) $\Delta 8.5$ ($\Delta 11.3$) (中) 4.4($\Delta 0.4$) (사우디) 7.6%(2.8%p)

③ (위험요인) 전쟁 악화, 높은 인플레이션 등 하방 리스크 확대 가능성

- 전쟁 악화로 ❶공급망 훼손, 물가상승 등 직접효과 뿐만 아니라 ❷러 채무 불이행에 따른 대차대조표 위험 등 간접효과*도 확대

* 장기적으로 보호주의, 기술교류 제한 등으로 세계경제통합 및 국제질서 저해 가능

- ❸유가·식품가 폭등, 난민에 따른 사회적 불안 ❹코로나 재확산, ❺中 성장둔화 장기화, ❻금리 인상 및 부채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도 상존

※ IMF는 원자재가격 상승, 공급망 훼손,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 긴축적 통화정책 등으로 '21년 대비 '23년 2.0%까지 하락하는 부정적 시나리오도 제시

④ (정책권고) 국가별 상황에 맞는 유연한 재정·통화정책 등 추진

- (재정정책) 부채관리를 위한 코로나·전쟁 취약층 지원 축소는 신중, 가계소득·기업대출 선별지원, 중기 재정건전성* 확보

* 세원 확대, 반복적 지출 및 광범위한 보조금 축소, 중기재정운용계획 마련

- (통화정책) 각 국 여건에 맞는 통화정책* 및 기대인플레이션 관리, 선진국 통화긴축에 대응하기 위해 신흥국의 금리인상 확대도 고려

* 예 : (美) 우크라 영향 低, 인플레 高 → 통화긴축, (EU) 성장 低, 인플레 高 → 긴축 속도조절

- (금융정책) 기업 파산·회생지원 강화, 외채 만기연장, 환율 유연성 확보, 신흥국 자본유출시 예외적 외환시장개입* 등 고려

* 단, 일시적인 자본흐름관리 수단은 일시 허용하되 거시정책 수단 대체는 금지

- (국제협력) 백신공급, 코로나 검사·치료 지원 지속, 코로나로 인한 교육기회 상실 지원, 채무 재조정 가속화, 글로벌 과세 공조

- (미래대비) 디지털화 등 대비 재교육·고용안전망 확충, 탄소가격설정·탄소감축 목표 상향 등 기후변화대응 강화

2. 평 가

① (세계경제) IMF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영향으로 금년 세계 경제 회복세가 대폭 둔화될 것으로 전망(4.4 → 3.6%, '22.1월 전망 대비 $\Delta 0.8\text{p}$)

① 금번은 전쟁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된 첫 전망(IMF 기준)으로 전쟁의 영향으로 공급망 훼손, 인플레이션 등이 보다 심화된 것으로 분석

- 통화정책 정상화, 재정지원 축소, 中 경제의 추가 둔화 가능성, 코로나 재확산 및 변이 가능성 등도 주요 하방 리스크로 거론

② 한편, 전쟁으로 통화·재정 등 정책목표의 상충성이 확대되어 정책 당국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을 강조

- 전쟁으로 더욱 악화된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서는 긴축적 통화정책이 요구되나, 경기 회복 필요에 따른 각 국 여건에 맞는 섬세한 정책도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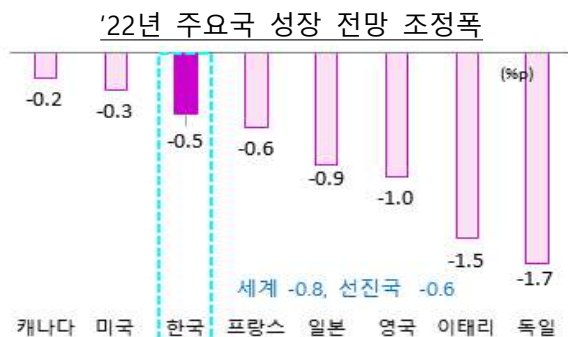
- 재정여력 확보를 위해 확대된 재정지원을 축소하되, 전쟁 및 코로나 취약계층에 대한 선별지원의 필요성도 언급

② (한국경제) 우리 경제 전망도 하향조정(3.0 → 2.5%, $\Delta 0.5\text{p}$) 되었으나, 세계 및 주요 선진국 대비 상대적으로 소폭 조정

① IMF 기존 전망('22.1월 WEO 및 한국 연례협의 보고서(3.29))시와는 달리 전쟁의 영향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주요 선진국 대비 제한적

- IMF 미션단의 기고문*에 따르면 전쟁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이 증대되는 와중에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회복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

* 4.11, KoreaTimes, 'Strong policies help Korea navigate uncertain times' ; Korea's recovery appears relatively resilient even amid rising inflationary pressures.



* 자료 : IMF WEO('22.4월)

주요기관의 '22년 한국 경제 성장전망 (%)

IMF (^{'22.4월})	정부 (^{'21.12월})	한은 (^{'22.2월})	OECD (^{'21.12월})
2.5	3.1	3.0	3.0
IB 평균 (^{'22.3월})	Fitch (^{'22.3월})	Moody's (^{'22.3월})	S&P (^{'22.3월})
3.0	2.7	2.7	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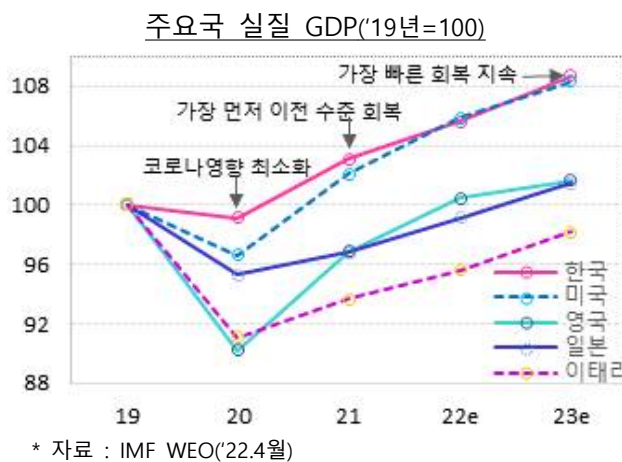
* 자료 : 각 기관 홈페이지

② 코로나 충격에 따른 기저효과를 제거한, '20~22년 평균 성장률은 G7과 비교시 미국에 이어 2위, '20~23년 평균 성장률은 G7 국가를 모두 상회

* '20~22년 평균성장률(%) : (美)1.92 (**韓**)**1.85** (캐)0.96 (獨)0.63 (佛)0.43 (英)0.15 (日)△0.28 (伊)△1.48

** '20~23년 평균성장률(%) : (**韓**)**2.11** (美)2.02 (캐)1.42 (獨)1.02 (佛)0.67 (英)0.41 (日)0.36 (伊)△0.45

- '20년에는 주요 선진국 중 코로나 상흔을 최소화하는데 성공했으며, '21년 가장 먼저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
- '22년 미국에 이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다가, '23년 미국도 추월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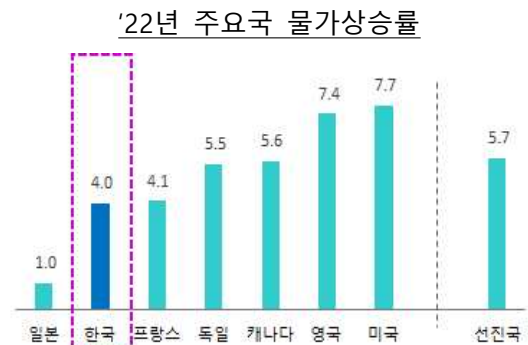
주요국 실질 GDP('19년=100)

	'20	'21	'22e	'23e
캐나다	94.7	99.1	102.9	105.8
프랑스	92.0	98.4	101.3	102.7
독일	95.4	98.1	101.9	104.1
이태리	91.1	93.7	95.6	98.2
일본	95.3	96.8	99.1	101.4
한국	99.1	103.1	105.6	108.7
영국	90.2	96.9	100.5	101.7
미국	96.6	102.1	105.9	108.3

* 자료 : IMF WEO('22.4월, 영문 알파벳순)

③ 한편, 소비자 물가도 지난 전망 대비 상향 조정(3.1 → 4.0%) 되었으나,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

- 우크라 전쟁으로 인한 유가 상승 등의 영향이 정부의 유류세 인하 등의 노력으로 일부 상쇄되었음을 의미



참 고

'22.4월, IMF 세계경제전망

(단위 : %, %p)

	'21년	'22년			'23년		
		'22.1월 (A)	'22.4월 (B)	조정폭 (B-A)	'22.1월 (C)	'22.4월 (D)	조정폭 (D-C)
세 계	6.1	4.4	3.6	△0.8	3.8	3.6	△0.2
선진국	5.2	3.9	3.3	△0.6	2.6	2.4	△0.2
미국	5.7	4.0	3.7	△0.3	2.6	2.3	△0.3
유로존	5.3	3.9	2.8	△1.1	2.5	2.3	△0.2
독일	2.8	3.8	2.1	△1.7	2.5	2.7	0.2
프랑스	7.0	3.5	2.9	△0.6	1.8	1.4	△0.4
이탈리아	6.6	3.8	2.3	△1.5	2.2	1.7	△0.5
스페인	5.1	5.8	4.8	△1.0	3.8	3.3	△0.5
일본	1.6	3.3	2.4	△0.9	1.8	2.3	0.5
영국	7.4	4.7	3.7	△1.0	2.3	1.2	△1.1
캐나다	4.6	4.1	3.9	△0.2	2.8	2.8	-
한국	4.0	3.0	2.5	△0.5	2.9	2.9	-
기타 선진국	5.0	3.6	3.1	△0.5	2.9	3.0	0.1
신흥개도국	6.8	4.8	3.8	△1.0	4.7	4.4	△0.3
중국	8.1	4.8	4.4	△0.4	5.2	5.1	△0.1
인도	8.9	9.0	8.2	△0.8	7.1	6.9	△0.2
러시아	4.7	2.8	△8.5	△11.3	2.1	△2.3	△4.4
브라질	4.6	0.3	0.8	0.5	1.6	1.4	△0.2
멕시코	4.8	2.8	2.0	△0.8	2.7	2.5	△0.2
사우디	3.2	4.8	7.6	2.8	2.8	3.6	0.8
남아공	4.9	1.9	1.9	-	1.4	1.4	-

* 우크라이나 : ('21.10월) '22년 3.6%, → ('22.4월) '22년 △35.0%